

#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할 것”

# “농어민·현장 중심 혁신농정 펼칠 것”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  
 급식비 등 도 차원 지원”  
 청년 일자리 공약 관련  
 “우수 인증기업 유치  
 3개월 기업 부담금 지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이 없고, 부모는 경제적 부담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북도 조성을 위해 적극적 재원마련과 함께 전북형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53)가 6일 전북형 무상 보육을 담은 보육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이 없고, 부모는 경제적 부담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북도 조성을 위해 적극적 재원마련과 함께 전북형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도 영유아 부모들은 매년 270만원을 입학금 및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 필요경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어린이집의 보육료 외에 입학금,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 필요 경비는 매년 초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납 한도액을 정해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구체적으로는 입학준비

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보육 인력의 처우개선, ▲공통육아나눔터 확충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난임부부 시술 비용 지원 등을 보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또, “도청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공정한 채용 원칙을 엄격히 지켜 전북도에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청년인턴 제도 확장,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매월 30만원씩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대상 확대, ▲청년들의 도청 참여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끝으로 “보육비용 전면 무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도를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살고 싶은 전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군산을 전북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 것”

‘도지사 출마’ 김윤덕 의원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1번지 조성 등 제시  
 부안 공약으로 서해안권  
 노을 해양공원 조성 등 발표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김윤덕 의원은 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은 군산시를 “새로운 울림으로 재도약하는 전북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부안군을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부안에 100년 먹거리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먼저 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벽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을 통해 군산을 35만 1인당 지역내 총생산 5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철도 항만 공항 도로 등 4가지 교통 인프라 완벽 구축, ▲대한민국 탄소중립 1번지 조성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으로 조선업 부활 ▲고교인문도 트랙 사업 지원 ▲통합 군산버스터미널 건립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군산은 전북의 심장”으로 군산이 뛰어야 전북이 산다”며 “군산 경제 부흥을 통해 잡고 있는 공장들, 인당 지역 내 총 생산 5만불 시대를 열

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부안 연락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안을 서해안권 관광·레저 중심도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서해안권 노을 해양공원 조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스마트 농업단지 아리울 자연드림파크 조성, ▲청호저수지 수변 노을생태로드 조성,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 조성 지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부안은 격포와 변산 체석강, 국가지질공원, 국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서해권 노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전북형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제시



안호영 의원은 “농정에 관한 정책을 확대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안주·진안·무주·장수)이 6일 제3회 공약인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맛비 청사잔란 내놓고 ‘밭 잔치’로 끝나는 농정이 아니라 농어민 중심 현장 중심의 혁신농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농정 4대 공약으로 ▲전북형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판매구조 혁신, ▲친환경·경축순환농업 지원 및 공공급식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먼저, ‘전북형 농어민 기

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히며, “가구당 현 60만 원인 농어민공약수당을 개인별 12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도내 2개년 단위를 우선 선정해 월 15만 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해서 기본소득 모델의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둘째로,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손이 모자란 농업현장에 인력을 증강하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 “정치는 소통, 경제는 화통, 불의에는 호통”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농민기본소득 확대 등  
 지역 주요공약 발표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정치는 소통 경제는 화통 불의에는 호통을 통해 ‘순창 발전’을 꼭 이루겠다.”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6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참석한 수 많은 지지자들이 “영일아! 너밖에 없다”라며 축하인사를 전하자 이같이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소멸위기에 처한 순창을 살릴 적임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최영일은 16년 동안 경험하고 공부했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

람, 군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지역발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순창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고, 순창에 처한 순창을 되살려, 지

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최 예비후보는 “특히, ‘정치는 소통으로, 경제는 화통하게, 불의에는 호통’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유호상기자·순창=이양원 기자

## “민주당 개혁성과 쇄신에 최적합”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60개 주요 공약 정책집 완성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전주시장 선거는 전주의 미래, 비전을 그리는데 매우 중요한 선거만큼 꼭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전 전주시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자신하며 5대 변화, 10대 분야 60개 주요 공약을 담은 정책집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선정이 본격화된 만큼 전 전주시장으로, 그동안 전주 발전을 위해 꼼꼼히 준비한 청사진을 가지고 속시원한 경제시장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6일 조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자 공모에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며 반드시 민주당 개혁·쇄신의 선봉에 설 사심 없는 후보가 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대선 패배 후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강력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을 대표할 만한 후보를 세우기 위한 데는 제대로 뽑았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성, 도덕성, 변화와 쇄신 등 어느 부분에서든 누구보다 자신 있는 만큼 전주 시민과 당원들이 판단해 민주당 우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조지훈을 선택해 줄 것을 확인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예비후보는 이런 자신감과 함께 앞으로 준비된 후보로서 ‘정책’으로 평가받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하며,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는 물론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도출해 낸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집의 발간 준비 역시 모두 끝마쳤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의 정책공약집 발간은 드문 사례로, 공약 하나에



윤준병 의원, 여성유권자연맹 등 선정 ‘참 관참은 의원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6일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참 관참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MBN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하는 ‘참 관참은 의원상’은 국회 의원 가운데 국민과 공동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민생 활동에 주력해 온 노력을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시상이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환경정책 개선, 산업재해 예방 및 비정규직·특고 노동자 등 노동 현안 해결에 앞장 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비롯해 빈집 문제·축정체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전 전주시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 양잠산업 해외진출 지원 규정 신설

이원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산업에 오디나 뽕잎의 생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양잠산물 등의 도매·소매, 보관·배송·포장 관련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가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가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해 누에잠재 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5월 10일 잠업인의 날을 정해 가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중흥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그린바이오 산업의 마중물이 될 양잠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6일 가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양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잠재 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양잠산업의 영예 확대와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뽕나무에 푸지뽕나무를 포함하고, 가능성 양잠

도 선관위, 지선 예비후보자  
 지서전 무상배부 혐의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자로 선거구인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자서전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지서전 133권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